

1.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나오미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장가간 아들(말론, 기론) 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만 둘 남았지요. 문제는 그곳이 모압땅이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외국인이었지요.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고, 모압으로 이민 나왔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2. 그런데 6절에 보면, 어느날 나오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고 했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흉년을 피해 나온 것이니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성경은 그 소문을 기록하면서, “양식을 주셨다”는 말 앞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멀지 않은 때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자기 백성을 권고(출 21:1)하셨습니다! 여기서, “권고”란 돌보셨다는 뜻이지요? 또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도 권고하셨습니다(렘 29:10/32:3).
4. 이럴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히브리 말이 **“파카드”**입니다. 권고하셨다! 조사하고 살피기 위해 찾아가 방문한다는 뜻이지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압수수색”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을 압수수색하셨다는 뜻이지요. 또 애굽에 사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기 위해 애굽을 압수수색하신 것입니다.
5. 이것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타고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흉년이 도망갔다는 말이지요. 이 소식에 나오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흉년의 자리에 나오미를 놓기 위해, 하나님은 그녀의 고향을 압수수색하신 것입니다.
6. 이 소식에 낙인 나오미, 드디어 귀환하기로 결심했지요? 그런데 이 일을 말하는 성경이, 먹을 것이 있다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음을 앞세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일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은 아니라는 소리지요. 나오미는 먹거리에 낙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고하심을 따른 것입니다.
7. 겉으로는 흉년을 피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향에 양식이 있다는데,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움직임 속에는 여호와의 돌보심이라는, 더 깊은 동인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 때 두 여인 모두 임신 중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눅 1:42). Ave Maria gratia plena Dominus te cum..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tui
9. 이에 대한 마리아의 화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눅 1:47b,48a).” 그 마음이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임신때문이라고 설불리 내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여호와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룻기의 기록 순서와 똑같습니다.
10.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했습니다. 돌보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양식이지요?

11. 그런데,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했습니다. 멈춘 것이지요. 왜 멈췄습니까? 두 며느리를 떼어 놓으려고! 오르바와 룻에게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나오미의 진심을 엿보는 것입니다. 정황상, 이 시국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친척들도 있지요? 회복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도 함께? 괜한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요즘 난민들을 쏘아보는 시선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13. 또, 한 번 이민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라면? “건강보험 혜택 때문인가보다” 또는, “우리 나라가 더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전 돌아오는구나~” 같은 소문도 나겠지요? 빈 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기회를 노리고 온 것 나오미로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14. 확실히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오미는 중간에 며느리 두 명을 떼려고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헤어짐을 슬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혼을 허락받았으니 기뻐서 울었다는 소립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왠지모를 비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외국인 과부 며느리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하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함이지요.
16. 이것은, 나오미의 귀환의 이유가,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희망 때문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도 아니지요. 그 보다 더 깊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먹을 것이야 해결되겠지요? 또 그런 차원에서 며느리 둘이란, 킨더겔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근거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를 포기하고 있지요.
17. 혹 이 며느리들이 유다로 이민가면, 새로운 기회가 찾을 수 있을까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유다인들에게 있는 계대결혼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남편을 맞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나오미는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냐”**는 것입니다.
18. 무슨 말입니까? 말은 축복이고 선의인지 모르겠으나, 그녀의 마음은 실상 비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좇아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나오미는 깊은 절망과 포기상태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오르고 있지만 사실은 죽으러 간다는 소립니다. 그녀는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입니다.
19. 이것은 마리아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은 복되다고 말해주고, 본인 자신도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노래하지요.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행복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인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20. 잠시 정리해 볼까요? 나오미의 귀환이란, 무너진 하늘 사이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한줄기 희망을 붙잡고, 또 가느다란 가능성을 붙잡고, 하루 하루를 견뎌 나가는 삶도 아니지요. 그녀의 귀환이란, 완전한 파산, 불가능,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지요.
21. 13절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22. 또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또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23.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살길이다”가 아니지요. 무덤으로 간다는 소립니다. 대신 거기에 한 가지 동행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와 권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24. 풍족할 때 암몬으로 이민을 나갔던 것은 나오미나 또는 그녀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결정이었겠지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께서 압수수색을 하셔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25. 그래서, 그녀의 인생행보에서 무엇이 앞서고 있다는 소립니까? 여호와와 돌보심! 여호와와 권고하심! 이걸, 우리의 구원에서도, 그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가져서? 소망을 품어서? 아니지요. 고향에 흥년이 가시고 새로운 기회가 생겨서?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와 권고하심이 우선입니다.
26. 우리가 개혁신교회로서 세상 앞에 늘 내놓는 구호가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이지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나오미같은 사람으로서 품을 수 있는 어떤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자기 최면도 아니지요.
27. 믿음이란, 우리가 나오미처럼 절망상태이고, 심지어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어떠한 희망도 가지지 못할 때에, 우리를 고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을 권고하셔서, 나오미로 하여금 그 소식에 염치불구하고 돌아갈 마음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28. 마리아가 노래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무엇이 교만한 생각입니까? 또 누가 권세있는 자입니까? 저 나라가 잘 산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재빨리 이민가는 자? 그렇게 어디든지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자?
29.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 오직 절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하나님이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시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